

10월1일부터 10월18일까지 진행된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최종 목적지인 불보종찰 통도사에 도착한 순례대중들이 맨발로 금강계단을 참배하고 있다. 양산=김현태 기자

삼보사찰 천리순례, 수행·전법 새장 열었다

평등한 공동체 생활...깨어나 잠들 때까지 불제자의 삶 실천
 불자들 자부심 높이고 결집하는 계기·명품 순례길 개척 평가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10월18일 18일간 진행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10월1일 승보종찰 송광사를 출발해 10월9일 법보종찰 해인사를 거쳐 10월18일 불보종찰 통도사에 이르기까지 순례단은 423km의 거리를 온전히 두 발에 의지해 삼보사찰을 참배했다. 한국불교의 중흥이라는 대원력을 향해 비구·비구니·우바세·우바이가 함께 나선 이번 순례길은 한국불교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사부대중 공동체를 이루다=삼보사찰 천리순례에는 비구 48명, 비구니 6명, 우바이 26명, 우바세 14명 등 사부대중 94명이 10월1일 송광사에서 입재식을 갖고 천릿길 순례의 첫발을 내디뎠다. 순례단은 사부대중의 원력과 동감으로 함께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상월결사의 의미를 걸음걸음에 새기며 18일간 앞으로 나아갔다. 길에서 자고, 먹고, 행선하는 하루 일과는 사부대중 누구에게나 평등한 공동체의 모습 그대로였다.

숙영지에 도착하면 출제자가 차별 없이 1평 규모의 텐트가 숙소로 주어졌다. 삶은 달걀 2개와 바나나, 치즈, 요구르트

가 모두의 아침공양이었고,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점심과 저녁은 매일 바뀌는 조별 출발 순서에 따라 제공됐다. 부득이 찾아오는 불편함과 어려움은 너와 나 구분 없이 양보와 배려, 격려로 극복하며 걸음걸음을 더해 함께 423km 대장정을 완성했다.

◆ 일상 속 수행문화를 제시하다=걷기는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던 불교의 가장 오래된 수행 방법이다. 초기경전인 '대념처경'에서는 "수행자는 걸어갈 때 나쁜 것은 버리고 알아차려야 한다"며 걷기가 곧 수행의 일환임을 역설한다. 또 경문을 외우며 걷는 '경행'이나 화두를 잡고 걸으며 참선하는 '행선', 또는 '포행'이 오늘날에도 널리 시행되고 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깨어나 걷고 잠들 때까지 일상이 그대로 수행의 과정임을 몸소 보여줬다. 순례단은 맑은 목탁소리로 새벽을 열어 절정례와 반야심경으로 순례를 시작했다. 걸으면서 화두나 염불, 주력과 기도 등으로 자신의 마음을 맑히며 묵묵히 나아갔다. 공양 때마다 불법승 삼보와 모든 생명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놓치지 않았고, 순례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이들에 대한 축원으로 하루를 회향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는 이번 순례를 계기로 기존 공양계의 핵심 내용을 57자로 함축해 재구성한 '삼보사찰 천리순례 공양계'부터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보급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 불자들 자부심을 높이다=만행결사는 "미래 한국불교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 앓은 불교에서 움직이는 불교, 침체된 불교에서 활기찬 불교, 소극적 불교에서 적극적인 불교로 전환돼야 중흥을 이룰 수 있다"는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걷기 순례가 불교중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며, 이를 통해 집약된 불교의 힘을 전법과 불교중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원력을 피력했다. 순례는 이 같은 자승 스님의 원력에 동의한 사부대중의 원력행이었다.

대장정이 시작되자 지역의 불자들이 적극 동참했다. 순례단이 내뱉는 곳마다 환영과 응원의 현수막이 물결을 이루었고, 마을마다 불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순례단의 발길에 힘을 불어넣었다. 이어지는 불자들의 발길에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 정치인들이 종교를 떠나 순례단을 찾아왔고, 이동식 화장실을 비롯해 교통정리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불교의 위상 강화는 물론 불자

들의 단단한 결속력과 자긍심으로 이어졌다.

◆ 명품 순례길 초석을 놓다=순례는 답사나 여행과는 결이 다르다. 신앙심 고취에 방점을 찍고 떠나는 길이기 때문이다. 부처님도 성지순례가 좋은 수행법의 하나임을 설교하셨다. 오랜 사찰의 역사가 이어지고 지금도 스님들이 거주하며 수행하는 모습을 직접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보사찰 천리순례 경로는 전법의 역사가 생생히 숨 쉬는 살아있는 순례길이다. 수행과 신행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는 과정은 불자들의 신심을 키우고, 일반인들에게는 불교에 대한 인식전환과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수 있다. 순례길을 걷다가 부처님께 귀의하거나 출가를 하는 등 불연을 맺을 수 있는 좋은 인연의 고리가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한국불교의 새로운 포교 활로를 제시했을 뿐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순례길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일반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비중이 높아 삼보사찰 천리순례길을 따라 걷는 것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 불교계가 한국의 명품 순례길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일이 과제로 남아있다.

☎ 관련기사 4·5·6면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원행 스님, ACRP 공동회장 선출

10월22일, 온라인 회의서 결정
 “아시아 종교평화가 세계 평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10월22일 일본 도쿄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제9차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총회에서 공동회장으로 선출됐다. ACRP는 아시아 25개국 종교인들이 종교간 화합과 인류상생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다. 우리나라는 7대 종교로 구성된 KCRP가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9차 ACRP 총회는 ‘행동하는 아시아종교인 공동체’를 주제로 10월 19~22일 일본 도쿄에서 각 대표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원행 스님은 이날 공동회장 수락연설에서 “아시아는 세계 주요종교가 탄생



한 종교성지”라며 “수많은 종교가 공존하는 지역이기에 종교간 화합이 세계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의 공동회장으로서 남북종교간 교류를 증진시켜 한반도평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다종교국가인 한국의 종교간 협력을 강화해 아시아종교간의 평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원행 스님은 다음 총회가 열리는 2026년까지 5년 동안 ACRP를 이끌게 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전통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타당성청래 발언 매우 부적절 민주당 입장”

송영길 대표, 종단 대표들에 밝혀
 “당대표로서 불교계에 송구”사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타당한 것이고 법률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게 변함없는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정청래 의원의 발언으로 불자들이 스님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 당대표로서 공식사과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10월20일 정청래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조계종의 공식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 더불어민주당대표실을 찾은 종단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조계종 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조격, 총무원 총무부장 금극, 기획실장 삼해, 해인사 총무국장 진각 스님과 운송환 총무원 기획실 차장, 이석심 해인사 총무실장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배 최고위원,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원욱 정각회장, 한병도 원내대표, 이용빈 대변인이 배석했다.

총무부장 금극 스님은 “정청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1700년 민족문화유산인 계승·보존해 온 불교계를 폄하하고 스님과 불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을 했다”면서 “불교계는 정 의원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잘못된 발언에 대해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기다렸지만 끝내 거부해 이 자리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정 의원의 발언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어이가 없고 깜짝 놀랐다”며 “오늘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이 문제와 관련한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정 의원의 발언은 개별 국회의원의 발언일 뿐 당과 지도부의 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사찰은 민족문화를 옮기지 않아온 그릇이고, 종교를 넘어 민족의 역사를 간직해 왔으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관리 보존해왔다”며 “그렇기에 전통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타당성에 대해 민주당은 확고히 지지한다. 법률에 의해 합법적으로 징수되고 있다는 점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어 “서양인들이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유산에 대해 찬탄할 때면 자부심을 갖는다”며 “법보종찰 해인사를 비롯한 전통사찰은 결코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인데, (정 의원이) 어떻게 그런 발언을 했는지, 어이없고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 3면에서 계속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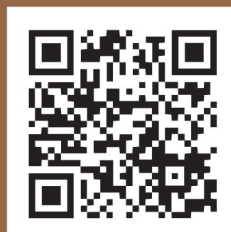
무료사전등록 안내 | 사전등록하고 무료입장하세요

2021.11.11(목) ~ 11.14(일)

서울국제 불교 박람회

사전등록 바로하기>

우측 QR코드를 핸드폰의 카메라로 스캔하면 사전등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슬로건 | 살아있는 전통문화의 꽃
 2021 주제 |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지혜 Green Life
 누리집 주소 | www.bexpo.kr
 접수 문의 | 02.2231.2013

사전등록 방법

홈페이지 접속
 www.bexpo.kr
 또는
 큐알코드 스캔

‘온라인
 사전등록’
 클릭

‘사전등록
 신청하기’
 클릭

내용입력

등록완료

2021.11.11(목)-11.14(일)

STEC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3호선 학여울역 1번출구)

* 단체관람을 희망하는 사찰, 단체는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 2021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철저한 방역 하에 진행됩니다.

☎ 02.2231.2013 | www.bexpo.kr